

진도 관매도 방파제 막은지 15년

‘자연의 반란’ 백사장이 사라졌다

비취색 바다, 울창한 숲, 황홀한 낙조 아래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백사장을 걸을 수 있는데다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관매도. 하지만 관매도는 ‘자연의 반란’으로 그 모습이 변했다.

〈관련기사 9면〉

가늘고 고왔던 금빛 모래로 뒤덮였던 백사장(길이 1.5km, 폭 200m)은 모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딱딱하게 굳어 갯벌로 바뀌고 있다.

백사장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5년 전인 지난 1992년. 진도군이 백사장 바로 옆에 길이 500m·폭 3m의 호안(護岸) 도로를 만들고, 마을 어귀에 있던 80m 길이의 관호항 선착장을 바다 쪽으로 50m 확장하면서부터다. 사구(砂丘·바람으로 운반된 모래가 쌓

시커먼 갯벌 뿐, 해수욕장 존폐위기

관광객 절반 ‘뚝’...생태계도 큰 변화

여서 만들어진 언덕) 보호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호안도로 때문에 모래가 쌓이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려 가면서 침식이 일어난 것이다.

관매도 박길석(38) 이장은 “지난 95년 이후부터 눈에 띄게 모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선착장과 가까운 곳은 거무튀튀한 펄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예전에는 백사장에서 쪼갬도 했었지만 요즘은 쪼갬도 불가능하고 백사장의 크기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자 ‘관매 8경’

중 하나였던 해수욕장을 보기 위해 찾던 피서객들도 지난 90년대 7만여 명에 달했으나 2000년 이후엔 3만여 명 이하로 뚝 떨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진도군은 지난 2004년 34억6천400만원을 들여 방파제를 50m 가량 줄이고 해수욕장으로 100여m 떨어진 곳에 길이 184m의 새 방파제를 건설했다. 또 방파제 중간(84m 지점)에 높이 1.9m·길이 2.5m 크기의 ‘해수 유통구’ 5개를 뚫었다.

하지만 2005년 전남대학교 해양연구소의 조사 결과 ‘해수 유통구’

설치 등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구와 해변(海濱·바닷가) 간에 모래 교환이 차단돼 사구 퇴적물이 토양화 되어 가고 ▲갯지렁이 등 저서생물(底棲生物·benthos)이 줄어들고 사구식물은 육상식물로 천이(遷移)해가는 생태적 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안이 건설된 바닷가에서는 모랫바다에 깔려나가는 세굴(洗掘) 현상과 불규칙한 조류 순환 양상이 관찰되는 등 생태계 변화가 심각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조환국 분소장은 “유기물이 축적돼 모래가 견고하게 굳는 토양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호안 시설물을 없애고 백사장의 경우 구간별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관매도 백사장 인근 관호항에 설치된 ‘해수 유통구’. 전문가들은 ‘해수 유통구’만으로는 백사장의 갯벌화를 막을 수 없다며 호안 시설물 철거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객선사, 승객수 늘려 보조금 꿀꺽

여수해경, 4곳 적발

섬 주민들의 뱃삿을 할인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 보조금을 가로챈 여객선사들이 적발돼 해경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여수해경은 5일 승객수를 늘려 섬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여객선 요금 보조금’ 2천여만원을 빼돌린 여수지역 H여객선사 직원 김모(50)씨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 혐의의 구속하고, 선장인 다른 김모(48)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여수와 고흥지역의 다른 여객선사 3곳도 같은 수법으로 1억4천여만원을 쟁긴 정황을 포착,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업체에서도 유사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이들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당 지자체에 승객을 부풀려 보고해도 모든 과정이 전자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탑승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업체에서도 유사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전북 절도 4명 영장

완도해양경찰은 5일 가두리 양식장에서 전복을 훔친 박모(46·완도군)씨 등 4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5일 밤 완도군 금당도 해상에 설치된 진도(49·고흥군)씨 양식장에서 전복 400kg(2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전복 양식장 종업원이었던 진씨 등은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등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전복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도=한영수

“가려진 뒷산이 보여요”

생일도 백운산 능선 이어져 착시현상



앞산에 가려진 뒷산 능선(稜線)이 투시돼 보이는 섬(사진)이 있어 화제다.

완도군 금일면 동백리 선착장에서 5km가량 떨어져 있는 생일도 백운산(해발 483m) 왼쪽 능선 대부분은 앞산인 목섬(· 150m) 오른쪽 능선이 가리고 있다. 하지만 목섬에 가려져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할 백운산 능선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착시 현상’(錯視現象)인 셈이다. 지난 여름 피서객들은 이 같은 현상을 카메라에 담아 인터넷에 올려 ‘착시 현상이다’, ‘합성이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백운산 능선은 비가 오는 등 낯은 날씨에 더욱 선명하게 보이며, 대낮에는 보

이지 않다가 해질 녘이 되면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또 동백리 선착장에서만 목격되며,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생일도로 다가가면 보이지 않는다.

생일면 김경주(53) 면장은 “목섬에는 비슷한 높이의 봉우리가 두 개 있어 동백리 선착장에서 바라보면 두 봉우리가 마치 한 개의 산처럼 보인다”며 “세 개의 산이 겹쳐있지만 가장 앞쪽에 위치한 목섬 첫 번째 봉우리의 좌우 능선이 각각 맨 뒤 백운산 왼쪽 능선과 중간에 있는 목섬 두 번째 봉우리 오른쪽 능선이 겹쳐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일도는 15km² 면적에 1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추석 벌초...예초기 사고 잇따라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에 나선 사람들이 늘면서 예초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6시11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산동에 사는 오모(70)씨가 집 마당에서 벌초를 위해 예초기를 시험 작동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왼쪽 팔과 다리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2일에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정모(75)씨가 예초기 날에 부상을 입었다.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예초기 사고는 8월 말 현재 21건으로 추석을 앞두고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예초기 엔진은 1.0~1.6마력의 힘으로 분당 7천에서 1만2천 번까지 칼날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극히 위험하다”며 안전사용 준수를 당부했다.

이/안원주기자 ahj@kwangju.co.kr

소방관이 뺑소니

진도경찰은 5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해남소방서 소속 김모(53) 소방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도주차량)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30분께 진도군 남동리에서 ‘대포차’인 자신의 다이너스티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진도군청 경제통상과 직원 조모(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뺑소니 친 혐의다.

김씨는 사고 현장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신고하고 조씨를 병원에 옮기는 등 목격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나원침 (7301)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CC construction services, including DS construction, KCC construction, and (주)본드나리.

한 아파트서 3시간 만에 4건 절도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시간 만에 4건의 절도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광주시 서구 금호동 H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에서 밤 9시 사이에 도둑이 들어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절도범들은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빠루’ 등으로 세 곳의 문을 열고 들어가 패물과 현금 등을 훔쳤는데, 네 번째 집 문은 뜯다가 경비요원이 울리자 도주했다고.

○신고를 받은 광주 서부경찰은 범인들이 CCTV가 없는 계단을 이용하고 지문도 남기지 않았으며 짧은 시간에 범행을 마치고 도망간 점으로 미루어 전문절도단의 소행으로 보고 진과자들을 대상으로 수사 중.

이/안원주기자 ahj@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Aro-namin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smiling couple and text about skin health and anti-aging benefits.